



기획재정부

## 보도설명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| 보도 일시 | 배포시                   | 배포 일시 | 2022. 9. 6.( 화)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기획재정부 예산실<br>지역예산과    | 책임자   | 과 장 이혜림 (044-215-7550)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노영래 (no31200@korea.kr)    |
| 담당 부서 | 기획재정부 예산실<br>국토교통예산과  | 책임자   | 과 장 남동오 (044-215-7330)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성기웅 (sevenfever@korea.kr) |
| 담당 부서 |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<br>재정담당관실 | 책임자   | 과 장 오원만 (044-201-3238)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서기관 김지혜 (sqphia282@korea.kr)  |

### 지방에 투자되는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,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

#### < 보도내용 >

- '22.9.6.(화) 연합뉴스는 「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1년 새 3.4조→2.2조 대폭 삭감」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 소관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(균특회계) 예산 감액은 '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, 지역 자율사업 유형을 확대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상반된다'고 보도

#### < 기획재정부·국토부 입장 >

- '23년도 균특회계 예산(안)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\*에도 불구하고, 금년대비 16.6% 증가(10.9→ 12.7조원, +1.8조원)된 규모이며,

\* 자주재원 보강과 함께 지자체 보조사업을 지자체로 이양 → 균특회계 사업에서 제외 ('23년 △1.1조원)되어 지자체 사무로 전환

-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대폭 확대\*('22년 13개 → '23년 24개)하여 지역의 자율성, 즉 지역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

\* 지식산업센터,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, 도시바람길숲 조성,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등

- 이와 더불어, 지역 자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율 인상(+5%p) 등 제도개선을 통해 낙후지역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균특회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수도권 SOC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 조치하고, '23년에 지방이양되는 사업이 자연 감소되는 영향으로 국토부 소관 균특예산은 일부 축소\*된 측면이 있습니다.
  - \* (회계 이관) 수도권 광역철도 6건 △0.7조원, (지방 이양) 주차환경개선 △0.3조원 등
- 앞으로도 정부는 균특회계 투자를 지속 확충하고, 자율사업 유형 확대 등을 통해 균형발전, 지역격차 해소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.